

## 협회, '2004 대한민국 창업대전 참가자 설명회' 개최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창업대전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협회는 '2004 대한민국 창업대전' 과 관련, 10월 7일부터 이틀동안 한국기술센터에서 1차 심사 합격팀을 대상으로 '2004 대한민국 창업대전 참가자 설명회' 를 개최했다. 학생부(152개)와 일반부(103개)로 나누어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창업대전 안내를 비롯하여 창업사업계획서 작성 및 시장조사와 사업타당성 검토 등 실무교육으로 진행됐다.

협회는 1차 심사 합격팀을 대상으로 2차 서류심사를 할 예정으로, 1차 심사 합격팀은 1차 서류에 대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강·수정하여 오는 10월 21일까지 협회 창업대전 사무국에 접수해야 한다. 2차 최종 서류심사 합격발표는 오는 11월 4일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12월

## 협회 장흥순 회장, MBC 100분 토론 패널로 참석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서울대 공대 한민구 학장, KAIST 신성철 부총장, 동아시아언스 김두희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협회 장흥순 회장은 10월 7일 MBC 100분 토론(유정형·이영배 PD)의 특집방송에 패널로 참석해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공계위기와 한국의 미래는' 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대전MBC 창사 40주년 기념으로 기획된 특집방송이다.

장회장은 "일본과 중국의 틈새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공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공계 부흥을 위해서는 이공계 출신의 지도층 진입기회를 확대하고, 신기술중심 산업인 벤처기업을 육성해 차세대 '신성장 동력' 을 이끄는 주체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벤처기업을 살릴 수 있는 보다 많은 정책개발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에는 장회장 외 청와대

VD이슈

## 이 총리, 벤처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벤처업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총리는 "MF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벤처기업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치하하고 "정부는 기업의 기술·지식 등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피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 대표들은 ▲금융기관 투자시 기술가치평가가 비중 확대 ▲지방 벤처기업 근무 인력에 대한 유인제도 확대 ▲해외진출 벤처지원을 위한 법률자문서비스 확대 ▲벤처특성을 고려한 코스닥 진입요건 마련 등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장흥순 회장, 협회 조현정 부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영남 회장,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광성신 회장, 이머시스 김풍민 대표, 하이엘 정기웅 대표, 유니빅 박용일 대표, KTB네트워크 김한섭 대표 등이 참석했다.

